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나성범 (23·외야수)
- 노진혁 (23·내야수)
- 모창민 (28·내야수)
- 이현곤 (33·내야수)
- 이호준 (37·내야수)



좌투좌타, 183cm·95kg 대성초-진흥중-진흥고-연세대
우투좌타, 184cm·80kg 대성초-동성중-동성고-성균관대
우투우타, 188cm·89kg 회정초-충장중-광주일고-성균관대
우투우타, 183cm·83kg 송정동초-무등중-광주일고-연세대
우투우타, 187cm·98kg 중앙초-충장중-광주일고

프로야구 전망대

KIA '6월 반전' 기운충전

4일 휴식후 LG와 주말 3연전...선발진 회복 관건

극과 극의 5월을 달린 '호랑이 군단'이 달콤한 휴식으로 뜨거운 6월을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가 주중 휴식기를 보낸다. 주말에는 LG 트윈스를 불러들여 홈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지난 4월 투·타의 고공행진 속에 1위 질주를 펼쳤다. 하지만 5월 불붙었던 타선이 식으면서 순위 싸움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부상과 WBC 여파로 김진우·서재응·윤석민 등 선발진이 흔들리면서 지난 주 하위권 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와의 홈 6연전에서 3승3패를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 찾아온 휴식기는 KIA에는 달콤한 시간이다. 선동열 감독은 "휴식도 훈련이다.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쉬는 것도 훈련의 방법이다. 쉬고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고 휴식을 강조했다.

부상병들을 기다리는 시간도 벌었다. 김주찬의 복귀가 더뎠고 있고 잘나가던 신종길까지 웰스트림 부상을 당하면서 KIA 타선에 힘이 빠졌다.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가운데 찾아온 휴식은 그래서 더 반갑다.

한숨 쉬어가는 KIA는 주말 LG를 상대로 6월의 반전을 노린다. 올 시즌 LG와의 전적은 4승2패. 휴식기 뒤 첫 대결인 만큼 마운드 총력전이 가능하고 침체된 타선에 새로운 동력도 생기면서 LG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 "팀에서 많은 기대를 하시는 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감독님께서 믿고 내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팀은 다르지만 내 고향은 이곳이다.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팀이라고 싫어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웃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2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넥센	40	27	13	0	0.675	0.0
2 삼성	41	27	14	0	0.659	0.5
3 두산	41	22	18	1	0.550	5.0
4 KIA	43	23	19	1	0.548	5.0
5 롯데	40	18	20	2	0.474	8.0
6 SK	42	19	22	1	0.463	8.5
6 LG	41	19	22	0	0.463	8.5
8 NC	42	14	26	2	0.350	13.0
9 한화	42	13	28	1	0.317	14.5

스플라이로 3타점을 만들며 7-4 승리의 수훈선수가 됐다. 4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타율은 0.429(14타수 6안타), 알짜배기 타점도 6개를 기록하면서 하위 타순에서 힘을 실어줬다.

자진해서 2군에 다녀왔던 안치홍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계속된 부진으로 고전을 했던 안치홍은 2군에서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안치홍은 복귀 첫날이었던 24일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NC와의 3연전에서 11타수 5안타(0.455)의 맹타를 휘둘렀다.

선발진의 회복이 6월 반전의 키를 쥐고 있다. KIA는 트레이드를 통해 신승현과 송은범을 투입하며 불펜 고민을 덜었지만 선발진의 위력이 떨어지며 기선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도 선발이 책임진 이닝은 29이닝. 윤석민(4.1이닝), 서재응(4이닝), 김진우(3이닝)가 5이닝도 버티지 못하면서 불펜이 25이닝을 막아냈다. 선발진의 방어율은 6.51, 불펜의 방어율은 2.16을 기록했다.

휴식을 통해 5월을 정리하는 KIA가 '여름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룡군단 NC 파워 원천은 광주의 힘



선발 라인업 광주일고·동성고 출신 5명 포진 베테랑·신인, 투타 맹활약 겁없는 돌풍 이끌어

'공룡 군단'의 겁없는 도전의 중심에 광주 출신 선수가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주말 3연전에서 막내 NC 다이노스의 거센 공세에 시달리며 1승2패를 거두는 데 그쳤다. 7-4로 승리를 거뒀던 26일에도 NC의 끈질긴 승부에 진땀을 흘리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강해지는 NC의 전력, 그 중심에 광주출신 선수들이 있다.

지난 26일 NC의 선발 라인업에는 5명의 광주출신 선수가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NC가 프랜차이즈 스타로 주목하고 있는 나성범(23·외야수)이 3번 타자로 나섰다. 광주출신 선수가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곤(33)은 4번과 7번에 배치됐다. 부상

에서 돌아온 모창민(28·광주일고)은 6번, NC의 내야를 책임지고 있는 유격수 노진혁(23·동성고)까지 8번에 들어서면서 9자리 중 5자리를 광주출신들이 꿰찼다.

FA로 NC에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호준과 이현곤은 노련함으로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기동.

연세대의 좌완 에이스였던 나성범은 투수가 아닌 좌타자로 등장해 힘있는 타격과 빠른 발로 고향팀과의 승부에서 5개의 안타로 5타점을 가져갔다. 또 중견수로 나서 폭넓은 수비 범위를 과시하며 자신의 스타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별지명으로 NC 일원이 된 모창민은 3연전 마지막 날 아쉬운 실책 두 개를 기록하는 했지만 고교시절부터 소문난 파워피

터. 지난 23일 친정팀 SK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트린 모창민은 25일 KIA전에서는 3개의 안타를 짚궂었다.

노진혁도 공·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은 NC의 새로운 스타다. 25일에는 김진우를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팀의 결승타점을 때려내며 활약을 선보였다. 노진혁의 결승타로 NC는 창단 후 첫 4연승에 성공했다.

마운드에도 고향방문으로 나선 선수가 등장했다. 25일 8회 NC의 계투진으로 등장한 임창민(28)도 동성고를 졸업한 광주출신이다. 2사 1·2투에서 KIA 김주영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동성고 시절 팀의 에이스와 4번 타자가 맞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6승 '찬스'

29일 LA 에인절스 1승 7패 조 블랜턴과 맞대결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투수 류현진(26)이 29일 오전 11시 10분(이하 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시즌 6승에 도전한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인 다저스는 28일부터 나흘간 지역 라이벌인 에인절스와 인턴리그를 치른다.

28~2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2연전을 벌이고 30~31일 에인절스 스타디움에서 맞붙는 '프리웨이 시리즈'다.

류현진은 우완 잭 그레이넬에 이어 홈에서 열리는 두 번째 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른다. 다저스보다 사정이 낫지만 에인절스 역시 거액을 투자하고도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에 머무르는 처지라 양팀 다 베팅에서 탈출하고자 전력을 다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인절스는 빅리그 최강으로 평가받는 핵 타선이 살아나면서 25일까지 최근 7연승을 달리고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3일 밀워키와의 방문경기에서 5승째를 거둔 류현진은 홈에서 강한 이점을 살려 3연승을 거두고 5월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5승 2패,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 중인 류현진은 홈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2.13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4월에 3승(1패)을 거둔 류현진이 5월에도 3승(1패)을 올린다면 메이저리그 첫해 두자릿수 달성 목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류현진은 12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래 2연승을 달리고 있다. 류현진과 어깨 대결을 벌일 에인절스 투수는 올해 1승 7패, 평균자책점 6.19로 부진한 우완 조 블랜턴이다. /연합뉴스

밀바닥 골프인생 이일희의 인간승리

'퓨어실크'생애 첫 승 美진출후 잇단 좌절 국내 복귀마저 막혀 4년만에 LPGA 우승

한국 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이일희(25·볼빅)가 2010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이후 4시즌만에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일희는 27일(한국시간) 바하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오션클럽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 마지막 날 12개 홀로 치러진 3라운드에서 버디로만 5타를 줄이며 합계 11언더파 126타를 적어냈다.

폭우로 골프장이 잠겨 36홀 경기로 축소된 이 대회에서 이일희는 2010년 LPGA 투어 진출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 달러(약 2억1600만원).

이로써 올해 한국여자 골프군단은 시즌 초반임에도 LPGA 투어에서 5승을 수확했다.

1988년 용띠 동갑으로 코리아 남자 군단의 주축을 이루는 박인비(25·KB금융그룹), 신지애(25·미래에셋)에 가려 국내외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던 이일희는 첫 LPGA 투어 우승으로 정상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2006년 프로에 입문한 이일희는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한 번도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LPGA 진출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2009년 캘리포니아 스톤에서 20위에 오른 그는

2010년부터 LPGA 대회에 출전했다.

나무랄 데 없는 스윙 자세와 샷 실력을 겸비했으나 결정적인 순간 주저앉은 바람에 이일희는 2008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009년 MBC 투어 제2회 롯데마트 오픈 등 국내 투어 대회에서 두 차례 준우승만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LPGA 무대에 전념한 그는 이번 대회까지 통산 5차례 톱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남겼다.

2010년부터 2년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한 이일희는 2011년 말 한국 복귀를 추진했지만 정작 KLPGA 투어 시드 선발전에서 고배를 들자 차라리 미국에 남기로 했다. 밀바닥에 추락한 시점부터 그의 골프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2012년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인 볼빅을 든든한 후원사로 맞이한 그는 투어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했고 그러자 성적이 볼라보게 좋아졌다.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오르고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공동 9위를 차지해 존재를 알린 이일희는 6일 끝난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하고 공동 3위에 오르며 자신감을 얻었다. 미국 생활 초반 후원사가 없어 신지애에게 신세를 많이 지 그는 미안한 생각에 독립을 결정했고, 현재 모든 투어 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소화하며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특히 투어 경비를 줄이고자 호텔 대신 대회 조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하우징을 하기도 했다. 하우징은 대회장 근처 빈 방이 있는 가정집에 무료로 투숙하는 것을 뜻한다. 이동 수단이 없어 동료 선수들의 차를 빌려 타던 시절도 있었다.

이일희는 첫 우승후 "골프를 하면서 목표가 큰 무대에서 뛰는 것이었다. 부딪혀보고 생각하고 미국 투어에 왔는데 이제 우승하고 나니 자꾸 눈물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일희가 프로데뷔 7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4 시즌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후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은퇴선수 초상권 찾기

협의회 권리 찾기 캠페인

사단법인 일구회 산하 은퇴선수협의회(회장 윤동균)가 은퇴선수들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은퇴선수협의회는 27일 잠실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퍼블리시티권 행사 등을 위해 은퇴 선수를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동균 회장은 "지금까지 한국 프로 야구를 거쳐 간 이들은 대략 23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자신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퍼블리시티권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으

로 온라인 게임사가 프로야구 게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대다수가 삶에 지쳐, 또 내세울 만한 성적이 없어 이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프로야구 선수출신이라는 자부심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퇴선수협의회에서는 현재 각 계 입장에서 초상권 등을 사용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은퇴선수 1000여 명의 증거를 확보했다. 프로선수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경제적인 보상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은퇴선수나 유가족들은 일구회(02-412-9701~2)로 연락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